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를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승리제단의 비전 '지상천국 건설' 늡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세상 건설 위해 총력 기울이자



본부제단에서 노방전도 행사를 벌이고 있다

리더는 자신이 이끌고 가는 단체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비전이란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란 뜻의 외래어다. 리더는 비전을 눈에 그리듯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승리제단의 비전은 무엇인가? 승리제단을 이끄는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상천국의 건설이다. 최악 세상, 죽음의 세상, 부정과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을 없애버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고자 구세주께서는 24년 간 외치셨다. 기성종교가 여지없이 사이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영생의 세계를 건설하지 못한다

먼 그건 다 사이비종교이며, 가짜 메시야다. 그래서 사후(死後) 천국과 사후(死後) 극락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는 사이비종교다.

### 먼저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라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그러자 대다수의 신도들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목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기성교인

들에게 묻는다.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지금 당장 가지 않는가?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설하신 지상천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어야 한다. 마음속 천국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자신의 마음속에 승리의 구세주께서 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된다.

승리제단 설립 초창기에 지상천국 건설을 외치는 구세주님께 신도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때 구세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천국 회복의 첫 조건은 마음속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이다.

구세주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미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꾸 반신반의하고 있다. 말하지 못하는 의심죄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웃기만 하라. 웃음 속에 천국이 있다.

### 지상천국은 소사에서 건설된다

마음 천국을 이루면 그 다음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구세주께서 제시한 비전은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시온성이다. 시온성은 빛의 세상(영원한 하늘나라)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자유율법을 지켜 하나님으로 거듭난 존재(의인)들만 들어가 사는 곳이다. 이에 대해 격암유록에는 금강석으로 성을 쌓는데(도부신인)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반법전 만국가)에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 의인들은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가 1000년이 차면 영원한 빛의 세계, 하늘나라로 완성되는 것이다. 육천 년전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전으로 돌아가 빛의 존재인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과 지고(至高)의 기쁨 속에서 순간에 우주의 끝에서 끝을 날아다니며 영원무궁토록 사는 나라이다.

승리의 마음 천국을 이룬 자만이 시온성 지상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지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승리제단 성도들은 지금 시온성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조희성님께서 제시한 비전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때까지 견디기만 하면 조희성님이 오셔서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조희성님께서 보광하셨고, 그 비전을 완성할 책무는 구세주 후보자로 키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 한시가 바쁘다. 전 성도들은 사력을 다해서 지상천국 건설의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4)

### “새 예루살렘에서 자유율법을 선포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자유율법을 선포한다. 이긴자는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1980년 10월 15일자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삼천년성이 이루어졌다. 삼천년성에서 이긴자가 비로소 자유율법을 선포하고 자유율법을 완성하는 역사를 시작하였다.

새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의 몸이 삼천년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시온성인 것이다. 이 새 말씀이 계속 해서 쏟아져 나오면 거기가 여린양의 보좌인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흐른다고 하였다.

역곡에서 새 말씀이 나오고 있다. 자유율법을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천당과 지옥도 보여주며, 또 사람 몸이 영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7천 년대에 사는 주역들이 이 승리제단에 모였다. 이 7천 년대에는 이긴자가 기수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긴자를 따라 나오는 자는 7천 년대부터 영원토록 맛있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 구도의 길

##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승리제단에서는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유율법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으로 심판 때에 적용되는 율법이다(야고보서 2:12). 자유율법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율법을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세밀하게 규율할 수 있다. 자유율법 중 대자(大學) 자유율법의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이다. 일과표를 의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 취침시간, 기상시간, 운동시간, 출퇴근시간, 예배시간, 기도시간 등등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자유율법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규칙적인 생활” 하면 칸트가 떠오른다.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은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만들 정도였다는 에피소드에서 잘 알 수 있다. 칸트는 왜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까? “점점 더 큰 경건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중략) 나는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보고, 그것들을 나의 실존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칸트의 유명한 앞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는 자신 안의 도덕법칙이 내리는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도덕법칙이 규칙적인 생활을 명령하지 않았을까?

자유율법은 왜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할까? 마귀의 성품은 변덕스러움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일관성이다. 마귀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하나님은 일단 정하면 꾸준히 지키는 일관성이다. 자유율법은 자신 속의 마귀의 마음을 죽이는 율법이며 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마귀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 마귀가(사자귀신)가 없어지면 천국에서 영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중의 죄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흩어져서 죄를 뭉텅 뭉텅 짓게 되어 있다. 자유분방한 사람 처놓고 생활이 방탕하거나 문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규칙적인 생활은 죄의 뿌리인 ‘나’를 묶고 자유율법을 지키고 사는 데 매우 유용한 습관이다. 수도자들이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본부제단 8월 지역활동 성적

개인 2등 5지역 45구역 신순이 권사  
개인 3등 3지역 29구역 정수운 승사

### 2지역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 차지

- 지역 1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지역 2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 지역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8월 성적은 2지역이 월등한 성적으로 지역1등, 구역1등(17구역 배경업), 개인1등(17구역 선평기)을 차지하였다. 2지역의 약진에는 선평기 성도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4지역이 승리신문 배포 접수에 힘입어 2등을 차지하였고 5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 구역 1등 2지역 17구역(구역장 배경업)
- 구역 2등 5지역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구역 3등 1지역 2구역(구역장 손경선)

윤봉수 대표는 “성적과 공로가 모여 나중에 구세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일 초 일 초가 쌓여 이긴자가 되고 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개인 1등 2지역 17구역 선평기 성도



2지역에서 상을 받고 있다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